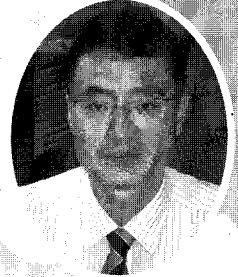


## 하반기 양돈사료산업 전망



민 승 기

전하제일사료 부장 양돈PM

탐정 소설이나 공포 영화를 보면 극 중에 예상치 못했던 반전(反轉)이 독자나 시청자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극 속에 빠져들게 하는 흥미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1/4분기의 대한민국 양돈산업의 흐름을 보면 잘 만들어진 편의 영화를 보는 듯 반전을 거듭하고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다.

2009년에 높은 돈가가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 었지만 3월 말에 5,300원/지육 kg을 웃도는, 연중 최고의 돈가를 형성하는 6월 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다.

현재의 고돈가는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1/4분기까지 6개월 여간 계속된 불황으로 2008년 모든 사육두수가 소폭이지만 계속 감소하였고 이는 올해 국내산 돈육 공급량의 감소 및 부족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여기에 미국발 금융대란으로 인하여 급등한 환율과 또 불안정한 환율 때문에 돈육 수입업체들이 자금 부족과 막대한 환차손에 대

한 위협으로 돈육 수입을 미루고 제한하여 발생한 우리나라 전체 돈육 공급량 부족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또 2008년 12월 말부터 전격 시행된 “돈육 원산지 표시제”로 인해 그간 수입돈육에 의존해 왔던 외식업체들이 원료육 구매를 국내산 돈육으로 전환하면서 국내산 돈육의 수요를 증가시킨 것 또한 국내 돈가를 끌어 올리는 한 요인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

2009년 벌써 3, 4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국 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안정되지 못하고 소위 “바닥”인지 더 추락할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미 FTA가 양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재협상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EU FTA가 실질적인 협상을 마쳐가고 있어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양돈 농가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양돈 산업은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또 좋든 싫든, 국제 경제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또 국

제 양돈 선진국과의 무한 경쟁 구도에 한 축이 되어 돌아가고 있다.

지금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한민국 양돈산업 미래의 흐름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필자는 올 하반기 국내산 돈육 공급량의 부족현상이 계속되리라는 것은 그간의 사육두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아직 안정되지 못하고 하루 하루 변동 폭은 크지만 환율이 점차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을 기반으로 하반기 양돈산업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2009년은 그간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히 노력해온 우리나라 양돈농가에게 하늘이 내려준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은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으로 가중된 생산비의 증가로 대한민국 양돈산업이 존폐 위기에 놓였었지만 작년 상반기에 발생한 AI 파동과 미산 쇠고기 파동 등으로 돈가가 급등하였고 올 상반기는 사료가격의 하락으로 생산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고 돈가가 형성되어 혹 닥칠 불황과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판단된다.

치열한 경쟁과 급격한 변화의 한복판에 홀로 외롭게 서 있는 대한민국 양돈 농가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2009년 하반기를 기대해 본다.

## 1. 양돈 산업 현황 및 전망

### 1) 사육두수 및 사육 호수 동향 및 예측

2007년 9월 양돈 사육두수가 966만두로 정점에 올라간 이후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1/4분기까지 6개월간 계속된 생산비 이하의 저돈가로 인해 사육두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2008년 3월 898만두까지 급락하였다. 그러나 돈가의 급등으로 전체 사육두수는 소폭 증가하여 유지 안정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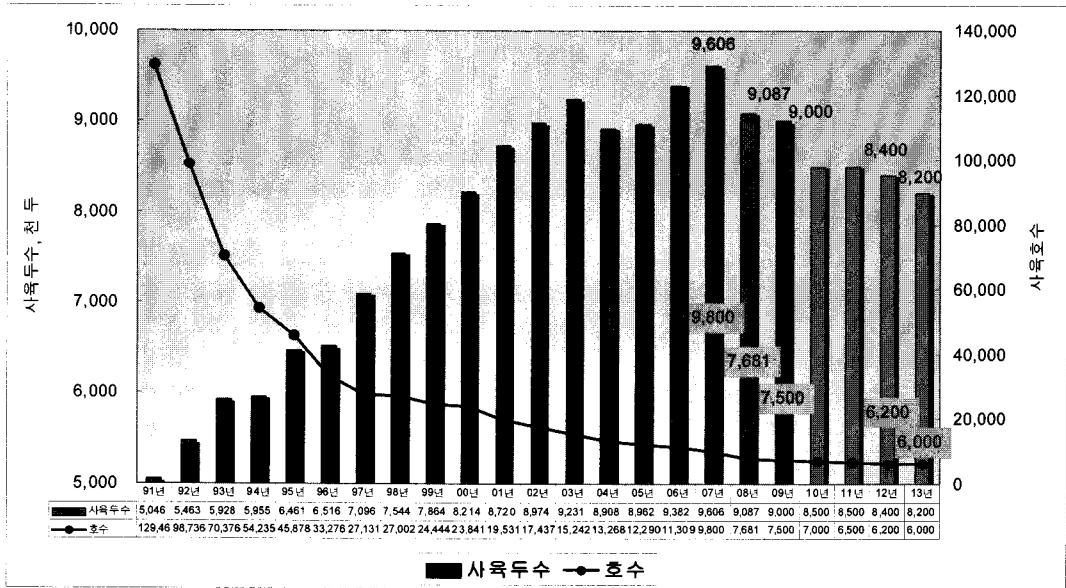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100만두를 웃돌던 번식돈의 사육두수가 2008년 내내 소폭 감소하여 전체 사육기반이 약화되었고 그 여파로 인해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1/4분기까지 계속 사육두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돈가로 인해 농장의 수익성이 양호해지고 사육 열기가 높아지면서 2009년 3월 번식돈의 사육두수가 소폭 증가하여 2008년 913만두였던 번식돈 사육두수가 약 920만두까지 소폭 증가하였고 전체 사육두수도 2008년 12월 대비 약 10만두가 증가한 917만두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육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고 하반기 돈가가 불투명한 관계로 사육두수는 소폭의 오르내림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육호수는 1,000두 미만의 농가는 계속 감소일로에 있고, 1,000두~5,000두 농가와 1,000두~5,000두 농가의 숫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 반면 10,000두 이상 대규모 농장은 큰 변화 없이 유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분간 계속될 고돈가는 소규모 농가의 폐



〈그림 1〉 사육두수, 사육호수 현황 및 전망

업과 전업 규모로의 확장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어 큰 폭의 사육호수 감소는 없고 소폭 사육호수가 감소하여 2009년 말 7,500호 정도의 사육호수가 예상되고, 사육두수 면에서도 900~910만두 내외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3/4분기 이후 돈가의 하락과 한·EU FTA 타결 및 한·미 FTA 재협상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우리나라 양돈 산업의 구조조정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림 1> 사육두수, 사육호수 현황 및 전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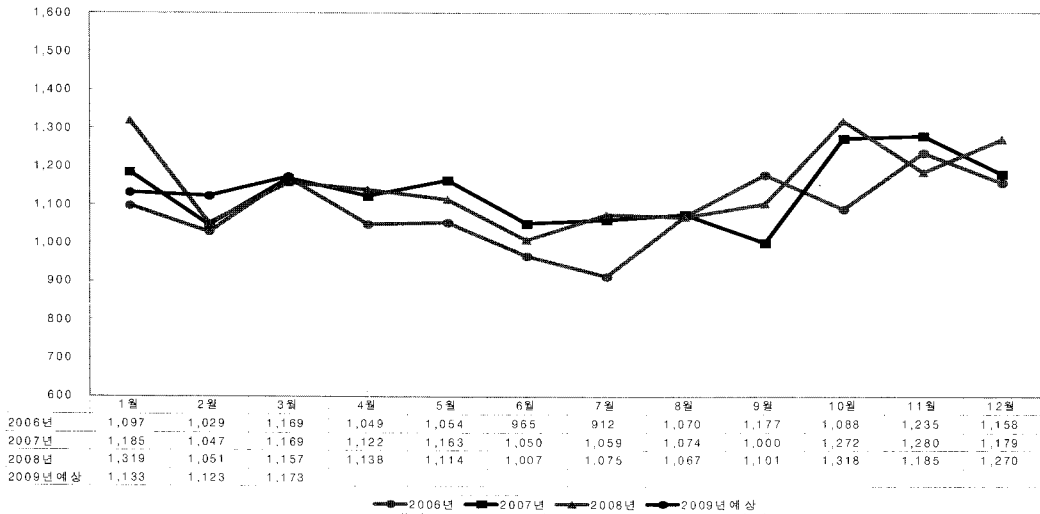
장기적으로 양돈산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지 않고 단기간의 고돈가로 인해 사육두수가 증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돈육 소비량 증가의 한계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수입 돈육의 증가로 사육두수는 매년 소폭 감소하여 2013년에는 사육두수 820만두, 사육호수

6,000호로 국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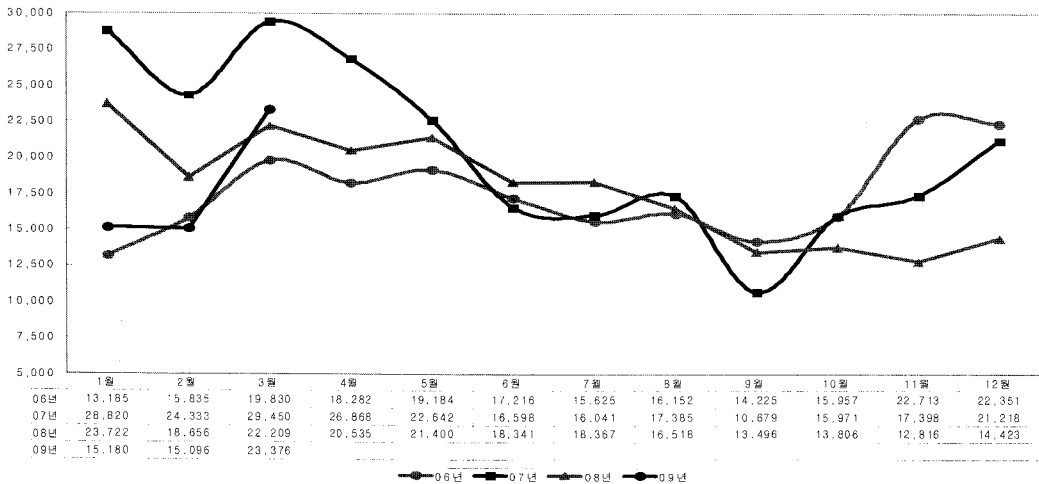
## 2) 돈육수급 동향 및 전망

2009 1/4분기 도축두수를 보면(<그림 2> 최근 3년간 월별 도축두수 현황) 1월과 2월 도축두수가 전년 동기 대비 95%로 감소한 반면 3월은 전월과 비슷한 숫자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1월~3월 누계 도축두수는 전년 동기 대비 3%가 감소한 상황이다. 2009년 도축두수는 전년대비 3~5% 감소하여 약 1,320만두 내외가 될 것이라는 것은 08년 말 예측했던 결과와 같다. 그러나 수입량은 1월과 2월 환율의 급등과 불안정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여 3월까지의 누계가 전년대비 83%에 불과하다.

1월과 2월 합계는 전년대비 70% 수준이지



〈그림 2〉 최근 3년간 월별 도축두수 현황



〈그림 3〉 최근 3년간 월별 돈육 수입량 현황

만 환율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 3월에는 수입량이 전년대비 5% 증가하였다(〈그림 3〉 최근 3년간 월별 돈육 수입량 현황).

돈육 수입량은 고돈가와 환율의 안정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고돈가로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이 20,000

원/kg까지 상승하여 비슷한 가격의 수입 쇠고기와 대체 소비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경기 위축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외식 산업이 불황을 겪고 있어 돈육 소비량 또한 당초 예측인 18.9kg/1인보다 밀돌 가능성이 높다(〈표 1〉 돈육 수급 동향 및 전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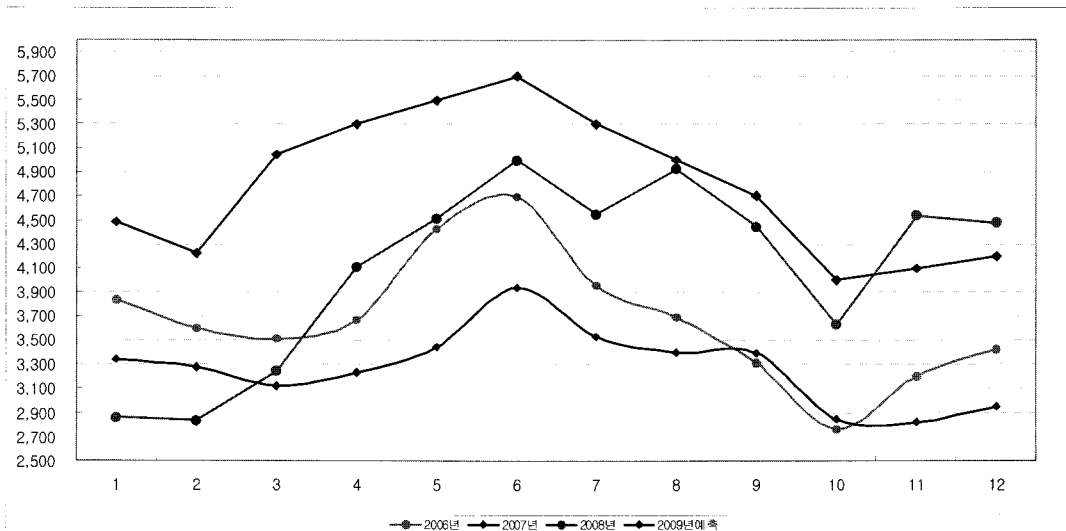
〈표 1〉 돈육 수급 동향 및 전망

구분	공급량, 천톤			소비량, 천톤		자급율(%)	1인당 소비량, kg
	생산량	수입량	계	소비량	수출량		
2003년	782.6	60.8	901.1	834.1	27.1	93.8	17.40
2004년	748.6	108.8	897.2	856.7	15.8	87.4	17.90
2005년	701.5	173.6	899.8	838.5	14.7	83.7	17.80
2006년	677.4	210.6	934.6	874.7	12.2	77.4	18.10
2007년	702.5	229.0	979.2	927.2	12.0	75.8	19.20
2008년 추정	699.0	220.0	959.0	932.0	12.0	75.0	19.30
2009년 예측	681.5	260.0	956.5	911.5	15.0	74.8	18.90
2013년 예측	651.3	330.0	1,011.3	966.3	15.0	67.4	20.00

### 3) 돈육(지육) 시세 전망

1/4분기 심각한 수급 불균형(국내산 돈육 생산량 감소 및 돈육 수입량 급감)으로 유래 없는 고돈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돈육 소비량 위축과 환율의 하향 안정으로 인한 수입업체들의 공격적인 수입량 증가

로 인해 치솟던 돈가가 조정양상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국내산 돈육 부족으로 인한 돈가의 상승은 다소 조정을 받아 상승폭은 둔화되겠지만 기록적인 최고의 가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2009년 연평균 돈가는 약 4,700원/지육kg이 예상된다.(〈그림 4〉 월별 지육가격 현황 및 전망 참조)



〈그림 4〉 월별 지육가격 현황 및 전망, 단위 원/지육kg, 전국 비육돈 평균가격(박피)

최근 비 정상적으로 상승했던 국제 곡물가격이 하락하여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비육돈 생산비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가 떨어지면서 생산비가 감소한 반면 유래 없는 고돈가로 양돈농가의 수익성이 예전보다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생산성이 낮은 농가의 경우에는 이 호황이 나오는 상관없는 그저 먼 남의 얘기일 뿐이다.

물론 국내외적인 경제 흐름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고 양돈장 경영에 참고하고 반영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농장의 절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은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로 생각하고 모든 양돈 농가가 무한경쟁의 시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9년 현장(농장)에서 고민하고, 땀 흘리며 열정을 쏟는 대한민국 양농 농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